

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0485-01

# 朝鮮王朝實錄鈔

# 漢城府資料集 27

宣祖 30年(1597) ~ 宣祖 31年(1598)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宗親射○丙戌禮曹啓天使鄭同護送軍回  
被搶擄○存歿難知然理宜收恤其家請依  
復戶免○從之但稅則止免一年  
御經筵講記等令李堪請承政院擅望提調承  
入望○不必鞠也李堪等更請之  
思慎○重添○  
藥房○  
養院則承旨燕之瓦署則  
足以察之臣意以謂革國  
上特以內臣不論恐不可也  
常典也請鞠之○不聽○  
鄭光世閔師壽啓曰我國書冊盡在景福  
直宿而已館後香室無看守之物而正兵

朝鮮王朝實錄鈔

# 漢城府資料集 27

宣祖 30年(1597) ~ 宣祖 31年(1598)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 일러두기

1. 본 자료집에는 민족문화추진회에서 번역한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중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에서 宣祖 30年(1597) 정월~宣祖 31年(1598) 12월까지의 서울관계 기사를 발췌·수록하였다. 수록된 기사는 서울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수정하기도 하였다.
2. 자료집 뒤에 실록 원문을 수록하였다. 원문 발췌 자료로 표점이 없는 『조선왕조실록』 영인본을 사용하였다.
3. 발췌는 서울의 명칭(京都, 京師, 漢京, 漢城, 漢陽, 都邑, 京中, 京城, 新都 등), 서울의 행정구역, 한성부 관직(漢城尹, 左尹, 右尹, 少尹, 府尹 등), 한성부의 건축물(宮闕, 官衙, 宗廟, 社稷, 陵, 門, 寺, 亭, 齋 등), 서울 관련 용어가 포함된 기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서울과 관계된 정책, 사건, 생활기사 등도 모두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4. 왕이나 왕실의 반복되는 일상사 및 왕족의 개인적인 행적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수록하지 않았다.
5. 국가 전반에 관계된 사항이라도 서울에 영향을 미쳤던 법 제정과 개정, 사건, 인물 등의 기사는 수록하였다.
6. 현재 서울에 편입된 지역의 행정, 사건, 인물 기사는 수록하였다.
7. 「선조수정실록」의 기사는 「선조실록」의 관련 기사와 대조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8. 각 기사의 번역문과 원문에는 수록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였다.
9. 각 기사는 실록 출전과 해당 연·월·일(간지)을 명기한 후, 원전의 권수와 쪽수를 표기하였고, 이어서 제목을 달았다. 기사의 제목은 서울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설정하였다.

10. 인명, 지명, 명칭 등의 경우 ( )안에 한자를 표기하였다. 한자는 동일 기사 내에서는 반복하여 표기하지 않았으나, 기사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각각 표기하였다. 풀이를 의미하는 한자는 [ ] 로 표시하였다.
11. 번역문에 포함된 각주는 재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이해를 돕기 위해 편집자가 주(註)를 추가하기도 있다.
12. 반복하여 등장하는 용어는 번역문의 마지막에 별도의 용어설명을 두어 따로 해설하였고, 본문의 해당 단어에 밑줄을 그어 표시하였다. 용어설명을 위하여 『한국고전용어사전』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역주경국대전』 및 기타 연구서 등을 참조하였으나 참고서적을 따로 명기하지 않았다.

## 목 차

1278. 선조실록 권84 선조30년 정월 2일(계사) 【23집 142면】 ..... 33  
 왜적의 통사를 서울에 입성하지 못하게 할 것을 허성이 아뢰다
1279. 선조실록 권84 선조 30년 정월 4일(을미) 【23집 143면】 ..... 34  
 서울의 방어와 대왜 전략에 대한 항왜의 의견을 병조에서 아뢰다
1280. 선조실록 권84 선조 30년 정월 6일(정유) 【23집 144면】 ..... 36  
 정경세와 같이 왜적에게 원한이 있는 자를 모아 부대를 편성하는 방안에 대해 비변사에서 아뢰다
1281. 선조실록 권84 선조 30년 정월 8일(기해) 【23집 145면】 ..... 37  
 왕이 남별궁에 거동하여 양 책사에게 상마연을 행하다
1282. 선조실록 권84 선조 30년 정월 10일(신축) 【23집 145면】 ..... 38  
 임금이 남별궁에 거동하여 유격장군 진운홍을 접견하다
1283. 선조실록 권84 선조 30년 정월 16일(정미) 【23집 146면】 ..... 39  
 임금이 대신 및 비변사 당상을 불러 서울 방호대장의 임명을 비롯하여 왜적을 방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다
1284. 선조실록 권84 선조 30년 정월 22일(계축) 【23집 149면】 ..... 47  
 비변사에서 왜적이 변장을 하고 서울에 침입해 오는 것에 대해 방어하는 문제를 아뢰다
1285. 선조실록 권84 선조 30년 정월 23일(갑인) 【23집 150면】 ..... 49  
 왕이 대신 및 비변사 유사당상을 명초하여 인견하다
1286. 선조실록 권84 선조 30년 정월 24일(을묘) 【23집 152면】 ..... 57  
 첨지중추부사 유응수를 인견하여 출전을 격려하다
1287. 선조실록 권84 선조 30년 정월 24일(을묘) 【23집 153면】 ..... 59  
 도체찰사 종사관과 고급사를 인견하여, 남쪽 지방의 현황을 듣고 명과의 외교 현안에 대해 논의하다

1288. 선조실록 권84 선조 30년 정월 25일(병진) 【23집 154면】 ..... 63  
명나라 사신 심유경이 일본에서 돌아오자 하마연을 행하고 왜의  
정세를 묻다
1289. 선조실록 권84 선조 30년 정월 27일(무오) 【23집 155면】 ..... 64  
지상군의 작전통제권 및 이순신·원균의 수군 지휘권에 대해  
대신들과 논의하다
1290. 선조실록 권84 선조 30년 정월 29일(경신) 【23집 157면】 ..... 74  
순찰하기 위해 떠나는 사도도체찰사 유성룡을 인견하여 인선문제를  
논의하다
1291. 선조실록 권85 선조 30년 2월 8일(기사) 【23집 160면】 ..... 77  
일본으로 떠나는 심유정에게 전별연을 베풀다
1292. 선조실록 권85 선조 30년 2월 12일(계유) 【23집 161면】 ..... 78  
경연에 참석한 후, 실록을 추가로 등서하는 문제 등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하다
1293. 선조실록 권85 선조 30년 2월 13일(갑술) 【23집 163면】 ..... 84  
분의복수군이 남교에서 회맹하다
1294. 선조실록 권85 선조 30년 2월 13일(갑술) 【23집 163면】 ..... 84  
제사 축문에서 제사 대상을 극항으로 높여 기재하는 격식 등에  
대해 논의하다
1295. 선조실록 권85 선조 30년 2월 14일(을해) 【23집 164면】 ..... 86  
사헌부의 건의로 성문 기찰의 임무를 소홀히 한 병조의 당상관을  
추고하고 색낭청을 파직하다
1296. 선조실록 권85 선조 30년 2월 15일(병자) 【23집 163면】 ..... 86  
기복시킨 무사의 명단을 보고하고 서울에서 시위하도록 하다
1297. 선조실록 권85 선조 30년 2월 17일(무인) 【23집 164면】 ..... 87  
평상시의 전례를 검토하여 별시에 액수를 정하다
1298. 선조실록 권85 선조 30년 2월 20일(신사) 【23집 165면】 ..... 88  
종묘 옛터에서 옥책과 신위좌판 하나가 발견되어 옥책을 종묘에  
보관하도록 하다

1299. 선조실록 권85 선조 30년 2월 24일(을유) 【23집 166면】 ..... 88  
 유성룡이 경기도 각 고을을 순시하고 입경하여 복명하다
1300. 선조실록 권85 선조 30년 2월 25일(병술) 【23집 166면】 ..... 88  
 별전에서 경연을 마치고 역사 기록의 보존과 서울의 방어 체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다
1301. 선조실록 권85 선조 30년 2월 25일(병술) 【23집 169면】 ..... 99  
 접반사 이광정이 명사신 심유경이 명나라 병부에 보낸 첩서의  
 내용을 아뢰다
1302. 선조실록 권86 선조 30년 3월 9일(기해) 【23집 174면】 ..... 101  
 경연이 끝나고 북병으로 서울로 시위하는 문제, 명나라 관원의  
 성향, 공명첩 발급 건 등에 대해 협의하다
1303. 선조실록 권86 선조 30년 3월 9일(기해) 【23집 176면】 ..... 107  
 서울 방어를 위해 교동과 강화에서 수군을 양성하고 훈련하기로  
 하다
1304. 선조실록 권86 선조 30년 3월 30일(경신) 【23집 185면】 ..... 108  
 도원수 권율이 장계를 올려 화의를 모색하는 내용의 일본측 서계를  
 전하다
1305. 선조실록 권87 선조 30년 4월 4일(갑자) 【23집 188면】 ..... 114  
 모화관에 거동하여 북병에 대한 친시를 시행하다
1306. 선조실록 권87 선조 30년 4월 13일(계유) 【23집 192면】 ..... 115  
 도성의 수축을 비롯한 국내 현안 및 일본 정책을 두고 야기된  
 명나라 관원 사이의 갈등에 개입할 것인지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누다
1307. 선조실록 권87 선조 30년 4월 15일(을해) 【23집 197면】 ..... 123  
 가뭄으로 삼각산·목멱산·한강 등에서 기우제를 설행하기로 하다
1308. 선조실록 권87 선조 30년 4월 17일(정축) 【23집 201면】 ..... 123  
 한유하는 출신·군관 등을 색출하여 서울의 오위에 소속시켜  
 숙위시키기로 하다

1309. 선조실록 권87 선조 30년 4월 20일(경진) 【23집 203면】 ..... 125  
 헌납 김신국 등이 서울의 배후도시가 되는 인근 고을 관원의  
 체차를 비롯한 현안을 건의하다
1310. 선조실록 권87 선조 30년 4월 20일(경진) 【23집 203면】 ..... 127  
 예조가 두 번째 기우제를 지낼 것을 아뢰다
1311. 선조실록 권87 선조 30년 4월 23일(계미) 【23집 208면】 ..... 128  
 민준을 한성부좌윤에 임명하다
1312. 선조실록 권87 선조 30년 4월 29일(기축) 【23집 211면】 ..... 129  
 서울의 축성 진행 상황 및 기구의 준비 상태를 보고하게 하다
1313. 선조실록 권88 선조 30년 5월 5일(을미) 【23집 215면】 ..... 129  
 고양·김포·양천 등에 큰 우박이 내려 벼가 손상되다
1314. 선조실록 권88 선조 30년 5월 8일(무술) 【23집 216면】 ..... 129  
 모화관에 거동하여 명나라 총병을 위로하고 주둔지에 대해 논의하다
1315. 선조실록 권88 선조 30년 5월 11일(신축) 【23집 218면】 ..... 132  
 황정옥을 서울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다
1316. 선조실록 권88 선조 30년 5월 11일(신축) 【23집 219면】 ..... 132  
 대신들이 양총병을 만나서 서울 방어에 굳은 의지가 필요하다는  
 등의 대화 내용을 보고하다
1317. 선조수정실록 권31 선조 30년 5월 【25집 662면】 ..... 133  
 부총병 양원이 서울을 경유해 남쪽으로 내려가다
1318. 선조실록 권88 선조 30년 5월 12일(임인) 【23집 220면】 ..... 134  
 도성 등에 곡성과 포루를 세워 방어기능을 보장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로 하다
1319. 선조실록 권88 선조 30년 5월 27일(정사) 【23집 231면】 ..... 135  
 주역을 진강하고 서울의 축성 및 청용청이 서울을 시위하는 방안  
 등을 의논하다
1320. 선조실록 권88 선조 30년 5월 29일(기미) 【23집 234면】 ..... 147  
 경연에서 《주역》을 강한 후 군량과 서울의 축성 문제 등을 의논하다



1321. 선조실록 권89 선조 30년 6월 2일(신유) 【23집 237면】 ..... 155  
 명나라 병력의 증파에 따라 이들의 동태와 군량의 확보 문제에  
 대해서 대신들과 의논하다
1322. 선조실록 권89 선조 30년 6월 5일(갑자) 【23집 239면】 ..... 160  
 각능 재량의 수직을 철저히 하고 서열이나 공사천의 무과 응시를  
 제한하다
1323. 선조실록 권89 선조 30년 6월 12일(신미) 【23집 244면】 ..... 161  
 박동언을 한성부서윤으로 삼는 등의 인사 기록
1324. 선조실록 권89 선조 30년 6월 14일(계유) 【23집 245면】 ..... 161  
 모화관에서 오유충을 영접하고, 한성부 등에서 머물 곳을  
 준비하도록 지시하다
1325. 선조실록 권89 선조 30년 6월 15일(갑술) 【23집 248면】 ..... 165  
 병조에서 명나라 장수에게 서울에서 조련한 포·살수의 인원 및  
 각지의 병력 상황에 대해 알려주는 정보를 정리하다
1326. 선조실록 권89 선조 30년 6월 15일(갑술) 【23집 249면】 ..... 165  
 윤자신을 한성부판윤으로 임명하는 등의 인사를 하다
1327. 선조실록 권89 선조 30년 6월 20일(기묘) 【23집 251면】 ..... 166  
 서울에 머무는 명군의 침탈을 우려하여 옹주 등을 강화로 피난시킬  
 것을 지시하다
1328. 선조실록 권89 선조 30년 6월 21일(경진) 【23집 252면】 ..... 166  
 정원에서 서울에서 옹주 등을 피난시키려는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청하다
1329. 선조실록 권89 선조 30년 6월 29일(무자) 【23집 258면】 ..... 169  
 경력 나부교를 접견하고 궁궐터 지형에 관한 풍수지리상의 조언을 듣다
1330. 선조수정실록 권31 선조 30년 7월 【25집 662면】 ..... 170  
 채독 마귀가 군사를 이끌고 서울로 들어오다
1331. 선조실록 권90 선조 30년 7월 3일(임진) 【23집 260면】 ..... 170  
 도독 마귀를 모화관에서 영접하다

1332. 선조실록 권90 선조 30년 7월 4일(계사) 【23집 260면】 ..... 171  
 남별궁으로 거둥하여 도독 마귀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서울에  
 내성을 쌓아 방어를 견고히 하는 계책을 듣다
1333. 선조실록 권90 선조 30년 7월 12일(신축) 【23집 264면】 ..... 173  
 모화관에 거둥하여 안찰 소응궁을 영접하고 위로하다
1334. 선조실록 권90 선조 30년 7월 12일(신축) 【23집 264면】 ..... 174  
 태평관에 거둥하여 안찰 소응궁을 접견하다
1335. 선조실록 권90 선조 30년 7월 13일(임인) 【23집 264면】 ..... 174  
 남대문 밖에 거둥하여 명나라 총병을 전송하다
1336. 선조실록 권90 선조 30년 7월 20일(기유) 【23집 266면】 ..... 175  
 광화문 밖에 거둥하여 명나라 장수를 접견하고 예물을 전달하다
1337. 선조실록 권90 선조 30년 7월 22일(신해) 【23집 267면】 ..... 175  
 수군의 전멸에 따른 후속 방어 대책을 논의하다
1338. 선조실록 권90 선조 30년 7월 28일(정사) 【23집 269면】 ..... 179  
 명나라 장수 유천질을 접견하고 창고를 도성 내로 옮기자는 등의  
 의견을 듣다
1339. 선조실록 권91 선조 30년 8월 4일(임술) 【23집 271면】 ..... 181  
 사간원의 건의로 모화관 거둥시 임무를 다하지 않은 의례 담당관을  
 파직하다
1340. 선조실록 권91 선조 30년 8월 4일(임술) 【23집 272면】 ..... 181  
 비변사에서 서울로의 진입로를 차단하기 위해 강화부의 방비를  
 강화하는 등의 조처를 건의하다
1341. 선조실록 권91 선조 30년 8월 5일(계해) 【23집 272면】 ..... 182  
 왕비의 경호 문제, 명군의 남방 방어 문제, 서울의 내성 수축  
 문제를 논의하다
1342. 선조실록 권91 선조 30년 8월 7일(을축) 【23집 274면】 ..... 191  
 서울에 내성 쌓는 것이 불편하다는 뜻을 명나라 도독 마귀에게  
 전하기로 하다

1343. 선조실록 권91 선조 30년 8월 7일(을축) 【23집 275면】 ..... 192  
 사헌부에서 서울 결사 방어의 뜻을 밝혀 민심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건의하다
1344. 선조실록 권91 선조 30년 8월 7일(을축) 【23집 275면】 ..... 193  
 시간원에서 중궁이 피난을 떠나서는 명나라 조정을 설득할 수  
 없으며 민심을 진정시킬 수 없다고 아뢰다
1345. 선조실록 권91 선조 30년 8월 7일(을축) 【23집 275면】 ..... 194  
 명나라 군인 이종의의 강간 미수 및 살인 사건에 관해 한성부가  
 보고하다
1346. 선조실록 권91 선조 30년 8월 7일(을축) 【23집 275면】 ..... 195  
 명나라 도독 마귀가 남산에 올라가 서울의 지형을 살피다
1347. 선조실록 권91 선조 30년 8월 8일(병인) 【23집 276면】 ..... 195  
 임금이 관원의 가족이 피란을 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왕비의 피난을  
 막은 이유로 언관에게 짜증내다
1348. 선조실록 권91 선조 30년 8월 8일(병인) 【23집 276면】 ..... 196  
 세자가 남방 전선에 참여할 것을 명나라 경리 양원이  
 건의하다
1349. 선조실록 권91 선조 30년 8월 8일(병인) 【23집 276면】 ..... 197  
 임금이 짐짓 남방 전선에 자신이 참여하고 싶다고 전교하다
1350. 선조실록 권91 선조 30년 8월 8일(병인) 【23집 276면】 ..... 197  
 명나라 경리 양원이 서울을 수호하여 싸우려는 임금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다
1351. 선조실록 권91 선조 30년 8월 9일(정묘) 【23집 276면】 ..... 198  
 사헌부가 도성에서 사대부의 피난을 적발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하다
1352. 선조실록 권91 선조 30년 8월 9일(정묘) 【23집 277면】 ..... 198  
 시간원이 서울 사대부들의 피난을 논계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하다

1353. 선조실록 권91 선조 30년 8월 9일(정묘) 【23집 277면】 ..... 199  
 명칭한 선조에게 대간의 왕비 피난 반대 건의와 서울 사대부  
 피난에 대한 논급하지 못한 것의 시비를 논하다
1354. 선조실록 권91 선조 30년 8월 11일(기사) 【23집 277면】 ..... 200  
 분의복수군청에서 도성 민심의 안정을 위하여 소속 군사의 도피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보고하다
1355. 선조실록 권91 선조 30년 8월 12일(경오) 【23집 277면】 ..... 200  
 비변사에서 임금이 직접 남방 전선으로 가겠다는 비망기에 대해  
 문장으로 반포하자고 하였으나 거부하다
1356. 선조실록 권91 선조 30년 8월 12일(경오) 【23집 277면】 ..... 201  
 왕자와 나인을 서울에서 대피시키라는 지시에 대한 사헌부의  
 반대를 목살하다
1357. 선조실록 권91 선조 30년 8월 12일(경오) 【23집 278면】 ..... 202  
 왕자와 나인을 서울에서 대피시키라는 지시에 대한 승정원의  
 반대를 목살하다
1358. 선조실록 권91 선조 30년 8월 12일(경오) 【23집 278면】 ..... 204  
 왕자와 나인을 서울에서 대피시키라는 지시에 대한 홍문관의  
 반대를 물정을 모르는 소치라 하여 무시하다
1359. 선조실록 권91 선조 30년 8월 14일(임신) 【23집 279면】 ..... 206  
 승정원에서 왕자와 나인을 서울에서 대피시키는 조치가 민심을  
 흠어지게 하니 재고할 것을 간청하다
1360. 선조실록 권91 선조 30년 8월 14일(임신) 【23집 280면】 ..... 209  
 양사가 합계하여 후궁과 왕자들의 피난을 중지시키고 서울 방어에  
 진력할 것을 간하다
1361. 선조실록 권91 선조 30년 8월 14일(임신) 【23집 280면】 ..... 210  
 홍문관에서 서울 방어에는 관심 없고 후궁과 왕자의 피난을  
 서두르는 임금에게 중지할 것을 간하다

1362. 선조실록 권91 선조 30년 8월 15일(계유) 【23집 280면】 ..... 211  
 접반사 장운익을 면대하여 국왕의 왕자 등을 피신시키기로 하고,  
 서울 방어를 위하여 남원성 전황에 주목하다
1363. 선조실록 권91 선조 30년 8월 15일(계유) 【23집 281면】 ..... 215  
 왕자와 후궁을 서울에서 피난시키는 결정을 취소할 것을 청하자  
 임금이 짜증스러운 반응을 보이다
1364. 선조실록 권91 선조 30년 8월 16일(갑술) 【23집 281면】 ..... 217  
 사헌부에서 가족을 피난시킨 관원의 처벌을 건의하고 서울 도성  
 수축 작업에서 명군의 분발과 조선 측의 태만을 경계하다
1365. 선조실록 권91 선조 30년 8월 17일(을해) 【23집 282면】 ..... 218  
 사헌부의 건의로 휴가를 핑계로 서울을 빠져나간 관원의 파직을  
 결정하다
1366. 선조실록 권91 선조 30년 8월 18일(병자) 【23집 282면】 ..... 219  
 남원성 명군의 패배로 국왕 및 국왕 일가가 서울에서 피난하는  
 방안을 논의하다
1367. 선조실록 권91 선조 30년 8월 19일(정축) 【23집 282면】 ..... 222  
 평양에 주둔해 있는 경리 양원이 서울로 오지 않도록 자문을  
 보내라고 지시하다
1368. 선조실록 권91 선조 30년 8월 19일(정축) 【23집 283면】 ..... 222  
 서울의 내성 수축, 한강 방어선의 구축 등에 대해 비망기로  
 전교하다
1369. 선조실록 권91 선조 30년 8월 21일(기묘) 【23집 283면】 ..... 223  
 사헌부에서 남원 함락에 따른 서울 인심의 수습책, 남원부윤  
 박경신과 속오군 장관들의 처벌 등을 건의하다
1370. 선조실록 권91 선조 30년 8월 21일(기묘) 【23집 284면】 ..... 226  
 사간원에서 피난간 서울 백성을 설득하여 귀환시켜야 한다고 건의하다
1371. 선조실록 권91 선조 30년 8월 22일(경진) 【23집 284면】 ..... 227  
 이축을 한성부판윤으로 임명하는 등의 인사를 하다

1372. 선조실록 권91 선조 30년 8월 24일(임오) 【23집 284면】 ..... 227  
남대문 밖에서 부총 양원을 맞아 부상을 위로하다
1373. 선조실록 권91 선조 30년 8월 27일(을유) 【23집 285면】 ..... 227  
관직을 버리고 서울에서 피난한 관원과 아전을 엄히 처벌하기로 하다
1374. 선조실록 권91 선조 30년 8월 27일(을유) 【23집 285면】 ..... 228  
사헌부에서 북병과 서울의 포수 살수를 편성하여 전선에 투입하고  
한강 상류의 방비를 점검해야 한다는 등의 조치를 건의하다
1375. 선조실록 권92 선조 30년 9월 2일(기축) 【23집 286면】 ..... 229  
호조에서 서울 및 각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곡물의 수량을 보고하다
1376. 선조실록 권92 선조 30년 9월 2일(기축) 【23집 287면】 ..... 230  
조선국왕이 서울 방어에 전념하다 남원의 명나라 병력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자문을 보내다
1377. 선조실록 권92 선조 30년 9월 3일(경인) 【23집 287면】 ..... 231  
완성군 이헌국이 명나라 경리 양호의 서울 방문을 앞두고 영접하는  
절차와 태도에 대해 건의하다
1378. 선조실록 권92 선조 30년 9월 3일(경인) 【23집 287면】 ..... 233  
임금이 모화관에서 경리 양호를 접견하였으나 접견후 무례하게  
사초를 빼앗아가다
1379. 선조실록 권92 선조 30년 9월 3일(경인) 【23집 288면】 ..... 233  
명 관원에게 사초를 빼앗긴 주서와 사관을 파직하기로 하다
1380. 선조실록 권92 선조 30년 9월 5일(임진) 【23집 288면】 ..... 234  
양사에서 임금이 사퇴할 생각만 하지 말고 서울 주둔 명군과  
협력하여 난국을 헤쳐가야 한다고 건의하다
1381. 선조실록 권92 선조 30년 9월 5일(임진) 【23집 288면】 ..... 235  
별전에 나아가 경리 양호를 접견하고 구제해 주기를 청하다
1382. 선조실록 권92 선조 30년 9월 9일(병신) 【23집 291면】 ..... 236  
대사성 김우옹이 유성룡을 책임자로 하여 한강 방어에 주력할 것을  
건의하다

1383. 선조실록 권92 선조 30년 9월 10일(정유) 【23집 291면】 ..... 237  
 임금이 명나라 부총의 거처에 거동하여 가솔의 피난을 도와 준  
 일에 사의를 표하다
1384. 선조실록 권92 선조 30년 9월 11일(무술) 【23집 292면】 ..... 240  
 각도의 징병을 동원하여 서울의 창고를 숙직하며 지키다
1385. 선조실록 권92 선조 30년 9월 11일(무술) 【23집 292면】 ..... 240  
 명나라 경리를 따라 한강으로 나갈 뜻을 승정원에 전교하다
1386. 선조실록 권92 선조 30년 9월 11일(무술) 【23집 292면】 ..... 241  
 경리 양호가 서울로부터 병력을 철수시키는 것 같다는 보고를  
 비변사가 올리다
1387. 선조실록 권92 선조 30년 9월 12일(기해) 【23집 293면】 ..... 242  
 수원으로 가는 명나라 경리 양호의 의도와 대처 방안을 논의하다
1388. 선조실록 권92 선조 30년 9월 13일(경자) 【23집 294면】 ..... 244  
 한강 방어에 주력할 것을 강조하며 경기수사의 투입 여부를  
 확인하다
1389. 선조실록 권92 선조 30년 9월 13일(경자) 【23집 294면】 ..... 244  
 사간원에서 서울로 세자를 소환하는 절차와 권율의 서울 입성에  
 반대하는 건의를 올리다
1390. 선조실록 권92 선조 30년 9월 13일(경자) 【23집 294면】 ..... 245  
 비변사에서 동궁이 서울로 급하게 돌아오는 것을 반대하다
1391. 선조실록 권92 선조 30년 9월 13일(경자) 【23집 294면】 ..... 246  
 도원수 권율이 한강선에서 방어전을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과  
 서울의 방어 시설에 대해 검토하다
1392. 선조실록 권92 선조 30년 9월 13일(경자) 【23집 295면】 ..... 248  
 경기감사 홍이상이 중전과 동궁의 피난 상황에 관해 보고하다
1393. 선조실록 권92 선조 30년 9월 14일(신축) 【23집 295면】 ..... 249  
 사간원에서 임금의 한강 거동 시 근시관의 시위 불찰을 지적하고  
 동궁의 소환이 그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건의하다

1394. 선조실록 권92 선조 30년 9월 15일(임인) 【23집 296면】 ..... 250  
 승정원에서 서울에 남아 있는 여인과 아동을 처음 계획대로  
 구출하자고 건의하다
1395. 선조실록 권92 선조 30년 9월 16일(계묘) 【23집 296면】 ..... 251  
 왜군의 갑작스런 퇴각이 서울 공격을 위한 속임수인지 확인하도록  
 지시하다
1396. 선조실록 권92 선조 30년 9월 16일(계묘) 【23집 297면】 ..... 251  
 유격 심유경을 협상대표로 보내는 것에 대해 좌의정 김응남이  
 의문을 제기하다
1397. 선조실록 권92 선조 30년 9월 17일(갑진) 【23집 297면】 ..... 253  
 사헌부에서 오랜 동안 서울로 복귀하지 않는 관원의 처벌과  
 종묘·사직의 봉환을 건의하다
1398. 선조실록 권92 선조 30년 9월 19일(병오) 【23집 297면】 ..... 254  
 모화관에 거동하여 부총병 이여매를 영접하고 위문하다
1399. 선조실록 권92 선조 30년 9월 19일(병오) 【23집 297면】 ..... 255  
 임금의 거동 시 어가와 어막의 체모를 손상시킨 담당 관원을  
 심문하거나 파직하기로 하다
1400. 선조실록 권92 선조 30년 9월 27일(갑인) 【23집 301면】 ..... 255  
 직무를 유기하고 도망간 관원들의 처벌과 한성부 가옥의 훼손을  
 금지하도록 하다
1401. 선조수정실록 권31 선조 30년 9월 【25집 663면】 ..... 256  
 명나라 군대가 왜적을 직산에서 크게 격파하다
1402. 선조실록 권93 선조 30년 10월 2일(기미) 【23집 304면】 ..... 257  
 사로잡힌 왜적 한 사람이 실토한 적의 내부 사정을 접반사  
 장운익이 보고하다
1403. 선조실록 권93 선조 30년 10월 3일(경신) 【23집 306면】 ..... 258  
 부상당한 한명련을 내의로 하여금 치료하게 하다



1404. 선조실록 권93 선조 30년 10월 3일(경신) 【23집 306면】 ..... 258  
 임금이 직산 싸움에서 공을 세운 명나라 유격의 관사에 나아가  
 접견하고 위로하다
1405. 선조실록 권93 선조 30년 10월 3일(경신) 【23집 306면】 ..... 261  
 충청병사 이시언이 사로잡은 왜적의 공초를 통해 왜적의 작전 의도  
 및 실상이 드러나다
1406. 선조실록 권93 선조 30년 10월 4일(신유) 【23집 307면】 ..... 262  
 한성부 및 공조에서 국가에서 사용하는 그릇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하다
1407. 선조실록 권93 선조 30년 10월 4일(신유) 【23집 307면】 ..... 263  
 서울의 빈 집을 뜯어가는 행위를 엄히 금하기로 하다
1408. 선조실록 권93 선조 30년 10월 4일(신유) 【23집 307면】 ..... 263  
 치료를 위해 한명련을 서울에 더 머물게 하다
1409. 선조실록 권93 선조 30년 10월 6일(계해) 【23집 309면】 ..... 264  
 병부상서 형개가 천자의 뜻을 받들어 보낸 자문과 그에 대한 회답
1410. 선조실록 권93 선조 30년 10월 7일(갑자) 【23집 310면】 ..... 270  
 왕세자가 서울로 돌아오다
1411. 선조실록 권93 선조 30년 10월 8일(을축) 【23집 310면】 ..... 270  
 임금이 자신을 허물하는 교서를 전라도와 충청도의 백성들에게  
 내리다
1412. 선조실록 권93 선조 30년 10월 10일(정묘) 【23집 312면】 ..... 273  
 승례문 밖에서 남쪽으로 출병하는 제독 마귀를 전송하다
1413. 선조수정실록 권31 선조 30년 10월 【25집 663면】 ..... 276  
 명나라 제독 마귀가 남원에 갔다가 돌아오니 동작강 가에서  
 맞이하다
1414. 선조실록 권93 선조 30년 10월 11일(무진) 【23집 314면】 ..... 276  
 군량을 가지고 입국한 동지 진등을 만나고, 이어서 유격 양만금을  
 접견하다

1415. 선조실록 권93 선조 30년 10월 15일(임신) 【23집 318면】 ..... 282  
 종묘·사직을 다시 서울로 봉환하여 안치하는 예절을 의논하여 정하다
1416. 선조실록 권93 선조 30년 10월 16일(계유) 【23집 318면】 ..... 282  
 이준을 한성부좌윤으로 임명하다
1417. 선조실록 권93 선조 30년 10월 17일(갑술) 【23집 319면】 ..... 283  
 이이첨이 종묘와 사직을 봉환하는 예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다
1418. 선조실록 권93 선조 30년 10월 18일(을해) 【23집 319면】 ..... 284  
 흥인문 밖에 거동하여 묘사의 신주를 친영하고 분향례를 행하다
1419. 선조수정실록 권31 선조 30년 10월 【25집 663면】 ..... 284  
 임금이 흥인문 밖에 나가 묘사의 신주를 맞아 분향례를 행하다
1420. 선조실록 권93 선조 30년 10월 19일(병자) 【23집 319면】 ..... 285  
 사헌부에서 종묘를 다시 짓는 일을 맡을 선공감 관원의 인사에  
 대해서 논하다
1421. 선조실록 권93 선조 30년 10월 20일(정축) 【23집 319면】 ..... 285  
 경리 양호를 접견하고 종묘사직이 서울로 봉환된 일 등을 이야기하다
1422. 선조실록 권93 선조 30년 10월 20일(정축) 【23집 320면】 ..... 287  
 적에 사로잡혔다가 도망쳐 나온 김응려의 공초 내용을 보고받다
1423. 선조실록 권93 선조 30년 10월 21일(무인) 【23집 321면】 ..... 288  
 전라도에서 도망한 초관 최정립의 처형을 명하다
1424. 선조실록 권93 선조 30년 10월 21일(무인) 【23집 322면】 ..... 289  
 제독접반사 장운익이 명군의 동정과 서울의 이동 상황에 대해 보고하다
1425. 선조실록 권93 선조 30년 10월 23일(경진) 【23집 325면】 ..... 290  
 훈련도감의 군인들이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휴가를 주기로 결정하다
1426. 선조실록 권93 선조 30년 10월 24일(신사) 【23집 325면】 ..... 291  
 명 황제의 칙서를 받고 칙사와 주례를 행하다
1427. 선조실록 권93 선조 30년 10월 30일(정해) 【23집 329면】 ..... 294  
 민폐를 우려하여 서울에서 하도에 파견되는 파견된 관원의 수효를  
 줄이기로 하다

1428. 선조실록 권94 선조 30년 11월 4일(신묘) 【23집 331면】 ..... 294  
사헌부에서 도원수 권율과 훈련도감 당상 조경을 탄핵했으나 거부하다
1429. 선조실록 권94 선조 30년 11월 6일(계사) 【23집 332면】 ..... 296  
권율과 조경의 탄핵을 거부하는 이유를 밝히다
1430. 선조실록 권94 선조 30년 11월 9일(병신) 【23집 335면】 ..... 297  
이이첨이 국왕의 사위에 반대하고 도주한 서울 금군의 처형을  
이행하지 않은 병조 당상을 처벌하자는 건 등을 건의하다
1431. 선조실록 권94 선조 30년 11월 10일(정유) 【23집 337면】 ..... 299  
서울 병력의 차출을 신중하게 하는 문제와 국왕의 순행시 왕세자의  
서울 잔류 등을 논의하다
1432. 선조실록 권94 선조 30년 11월 11일(무술) 【23집 338면】 ..... 300  
병조에서 왕의 남방 순방시의 서울 병력을 척후, 한후 등에  
동원하는 방안을 보고하다
1433. 선조실록 권94 선조 30년 11월 12일(기해) 【23집 338면】 ..... 301  
경리 접반사가 명군이 왜병을 상대하기 위해 구상하고 있는  
조선군과의 연합 작전 계획을 보고하다
1434. 선조실록 권94 선조 30년 11월 14일(신축) 【23집 339면】 ..... 302  
남별궁에서 양경리를, 회현방동에서 마제독을 접견하다
1435. 선조실록 권94 선조 30년 11월 15일(임인) 【23집 339면】 ..... 303  
국왕의 남행시 호가 대책 및 서울에 잔류하는 왕세자의 역할에  
대해 지시하다
1436. 선조실록 권94 선조 30년 11월 16일(계묘) 【23집 340면】 ..... 303  
비변사에서 속오군을 연이어 서울로 징발하지 말 것을 건의하다
1437. 선조실록 권94 선조 30년 11월 21일(무신) 【23집 340면】 ..... 304  
서울로 징집되는 속오군의 과중한 부담, 운용상 미비점 등을  
보완토록 하다
1438. 선조실록 권94 선조 30년 11월 22일(기유) 【23집 341면】 ..... 306  
접대도감에서 왕자구출 등에 공로가 있는 명나라 도사 사용제의  
접견을 건의하다

1439. 선조실록 권94 선조 30년 11월 24일(신해) 【23집 341면】 ..... 306  
 승정원에서 거가 일정을 미리 정하여 서울과 경기 일원의 지공  
 부담을 조정하도록 건의하다
1440. 선조실록 권94 선조 30년 11월 27일(갑인) 【23집 342면】 ..... 307  
 제독접반사가 명군이 동작강 강변에서 훈련하는 모습을 아뢰다
1441. 선조실록 권94 선조 30년 11월 29일(병진) 【23집 343면】 ..... 308  
 명나라 군문 형개를 접견하고 명의 파병, 전란 상황 등을 논의하다
1442. 선조실록 권95 선조 30년 12월 4일(경신) 【23집 344면】 ..... 309  
 한강에 나가서 마제독을 전송하며 군의 기강에 대해 담화하다
1443. 선조실록 권95 선조 30년 12월 4일(경신) 【23집 344면】 ..... 310  
 한강에서 권율을 접견하고, 전황에 대해 우승지 한준겸과 함께  
 논의하다
1444. 선조실록 권95 선조 30년 12월 6일(임술) 【23집 345면】 ..... 312  
 남대문 밖에서 이부총을 전별하면서 노고를 치하하고 예물을 주다
1445. 선조실록 권95 선조 30년 12월 6일(임술) 【23집 345면】 ..... 313  
 사간원에서 임금이 남하한 후 세자와 시임대신이 서울에 남아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방안을 건의하다
1446. 선조실록 권95 선조 30년 12월 10일(병인) 【23집 347면】 ..... 314  
 비변사에서 왕의 남하 후 세자와 비변사에서 업무 처리하는 방안을  
 보고하다
1447. 선조실록 권95 선조 30년 12월 11일(정묘) 【23집 347면】 ..... 315  
 임금이 명나라 장수 형개를 만나 서울을 떠나 종군할 의향 등을  
 이야기하다
1448. 선조수정실록 권31 선조 30년 12월 【25집 663면】 ..... 316  
 명나라 군문 형개가 서울에 오다
1449. 선조실록 권95 선조 30년 12월 11일(정묘) 【23집 347면】 ..... 317  
 병조에서 눈 때문에 서울에 도착하지 못한 강원도 병력의 운용  
 방안을 보고하다

1450. 선조실록 권95 선조 30년 12월 13일(기사) 【23집 349면】 ..... 317  
 임금이 승정원에서 명군을 따라 남하해야 하는 사정을 계첩으로  
 작성하여 명나라 군문 형개에게 보내게 하다
1451. 선조실록 권95 선조 30년 12월 14일(경오) 【23집 350면】 ..... 319  
 명나라 군문의 만류로 국왕의 남하 계획을 취소하고 이러한 사정을  
 문서로 통지하게 하다
1452. 선조실록 권95 선조 30년 12월 17일(계유) 【23집 351면】 ..... 321  
 병조에서 임금의 남행 중단에 따라 외방 병력의 서울 유입이  
 중단되는 조짐을 우려하는 보고를 하다
1453. 선조실록 권95 선조 30년 12월 18일(갑술) 【23집 352면】 ..... 322  
 국왕이 명 지휘부의 권유로 서울에 계속 잔류하게 되었음을 명군의  
 도찰원과 총병부에게 설명한 자문
1454. 선조실록 권95 선조 30년 12월 19일(을해) 【23집 352면】 ..... 325  
 임금이 모화관에 나가 낭중 동한유를 위로하고 주례를 행하다
1455. 선조실록 권95 선조 30년 12월 23일(기묘) 【23집 353면】 ..... 325  
 명나라 통판과 군량미 수급에 대해 의논하고 종묘사직을 짓지  
 못하여 사처에 거하는 현실을 언급하다
1456. 선조실록 권95 선조 30년 12월 23일(기묘) 【23집 353면】 ..... 328  
 호조판서의 반대로 서울의 비축 곡식을 명군의 군량으로 제공하지  
 않기로 하다
1457. 선조실록 권95 선조 30년 12월 23일(기묘) 【23집 354면】 ..... 329  
 유자신을 한성판윤으로 삼다
1458. 선조실록 권95 선조 30년 12월 28일(갑신) 【23집 355면】 ..... 329  
 사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자신의 한성판윤 제수를  
 고수하다
1459. 선조실록 권95 선조 30년 12월 28일(갑신) 【23집 355면】 ..... 329  
 비변사에서 서울에 체류하는 관원에게 요미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실을 지적하다

1460. 선조실록 권95 선조 30년 12월 29일(을유) 【23집 356면】 ..... 330  
정언 유공량이 유자신의 한성판윤 임명을 철회할 것을 청하였으나  
기각하다
1461. 선조실록 권96 선조 31년 정월 1일(정해) 【23집 358면】 ..... 331  
정릉동 행궁에서 망궐례를 행하다
1462. 선조실록 권96 선조 31년 정월 7일(계사) 【23집 362면】 ..... 331  
군문도감에서 군량을 운반하는 방안을 논의해 보고하다
1463. 선조실록 권96 선조 31년 정월 12일(무술) 【23집 363면】 ..... 332  
임금이 흥제원에 나가 명나라 어사를 맞이하여 다례를 행하다
1464. 선조실록 권96 선조 31년 정월 14일(경자) 【23집 364면】 ..... 333  
전사한 명나라 천총의 시신이 서울로 운구되자 축문을 지어 제사하다
1465. 선조실록 권96 선조 31년 정월 14일(경자) 【23집 364면】 ..... 333  
사간원에서 아뢴 시폐 건의와 정여립 사건 때 노수신의 역할을  
언급한 사평
1466. 선조실록 권96 선조 31년 정월 15일(신축) 【23집 365면】 ..... 336  
승정원에서 명군의 퇴각에 따라 서울에서의 군량 확보가 시급함을  
환기시키다
1467. 선조실록 권96 선조 31년 정월 19일(을사) 【23집 367면】 ..... 337  
승례문 밖에 나가 명나라 중군 고책을 영접하다
1468. 선조실록 권96 선조 31년 정월 19일(을사) 【23집 367면】 ..... 337  
전사한 명 천총의 시신이 서울에 도착하자 예로써 제사지내게 하다
1469. 선조실록 권96 선조 31년 정월 20일(병오) 【23집 367면】 ..... 337  
유격 진인의 관사로 찾아가 적과의 전투 상황을 듣고 이길 계책을  
논의하다
1470. 선조실록 권96 선조 31년 정월 27일(계축) 【23집 373면】 ..... 343  
심우승을 한성부유윤으로 임명하다
1471. 선조실록 권96 선조 31년 정월 28일(갑인) 【23집 374면】 ..... 343  
한강에 나가 양 포정을 전별하다

1472. 선조수정실록 권32 선조 31년 정월 【25집 664면】 ..... 343  
 제독 마귀가 경주로부터 군사를 이끌고 서울로 돌아오다
1473. 선조실록 권97 선조 31년 2월 2일(정사) 【23집 375면】 ..... 344  
 서울의 창고로 평안·황해도의 미두를 운송해 오는 방안을 호조에서  
 보고하다
1474. 선조실록 권97 선조 31년 2월 4일(기미) 【23집 377면】 ..... 344  
 한강에 가서 양포정을 맞이하고 농정에 대해 이야기하다
1475. 선조실록 권97 선조 31년 2월 5일(경신) 【23집 378면】 ..... 345  
 한강으로 동남중을 마중 나갔다가 행차가 늦어지자 우상으로  
 대신하게 하다
1476. 선조실록 권97 선조 31년 2월 9일(갑자) 【23집 380면】 ..... 345  
 서울에 주둔하는 명군의 식량 수급을 위하여 전세미두의 운송을  
 서두르게 하다
1477. 선조실록 권97 선조 31년 2월 13일(무진) 【23집 383면】 ..... 346  
 이충원을 판윤으로 임명하다
1478. 선조실록 권97 선조 31년 2월 15일(경오) 【23집 384면】 ..... 346  
 비변사에서 명군의 서울 입성시 식량 수급이 곤란하므로 일부  
 병력은 식량 수급 가능 지역에 주둔하도록 건의하다
1479. 선조실록 권97 선조 31년 2월 16일(신미) 【23집 384면】 ..... 347  
 경리를 영접코자 동작강가에 갔으나 소복을 이유로 만나주지 않다
1480. 선조실록 권97 선조 31년 2월 18일(계유) 【23집 387면】 ..... 348  
 서울의 군량 부족 때문에 명 병력의 일부가 전주와 예천에  
 주둔하다
1481. 선조실록 권97 선조 31년 2월 19일(갑술) 【23집 387면】 ..... 348  
 명의 형군문이 그간의 정황을 보고하면서 후사를 도모하게  
 유임시켜 달라는 제본을 올리다
1482. 선조실록 권97 선조 31년 2월 19일(갑술) 【23집 388면】 ..... 351  
 병조에서 남대문에 종이 설치되어 인정·과루를 칠 것임을 아뢰다

1483. 선조실록 권97 선조 31년 2월 20일(을해) 【23집 389면】 ..... 352  
조선이 명에 보내는 일본의 승전 보고로 인해 명나라 제독 마귀가  
불만을 품다
1484. 선조실록 권97 선조 31년 2월 21일(병자) 【23집 390면】 ..... 353  
해주에서 발송한 군량 운반선이 용산강에 정박하다
1485. 선조실록 권97 선조 31년 2월 23일(무인) 【23집 392면】 ..... 353  
전공의 상징인 수급을 훈련원 앞에서 태우고 무덤을 만들기로 하다
1486. 선조실록 권97 선조 31년 2월 25일(경진) 【23집 393면】 ..... 354  
방어지에서 달아난 우방어사 유염을 모화관에서 처형하다
1487. 선조실록 권98 선조 31년 3월 3일(무자) 【23집 397면】 ..... 354  
호조판서가 명군의 주둔에 따른 서울 비축 곡식의 과다 지출로  
명측의 조속한 군량 운반이 필요하다고 보고하다
1488. 선조실록 권98 선조 31년 3월 7일(임진) 【23집 398면】 ..... 355  
윤국형을 한성부 우윤으로 삼다
1489. 선조실록 권98 선조 31년 3월 8일(계사) 【23집 398면】 ..... 356  
간원에서 이사명이 납속의 공으로 가선으로 가자된 것이  
지나치다고 지적하다
1490. 선조실록 권98 선조 31년 3월 13일(무술) 【23집 399면】 ..... 356  
정원에서 이사명이 군량 납속 건의 내막을 아뢰다
1491. 선조실록 권98 선조 31년 3월 15일(경자) 【23집 400면】 ..... 357  
호조에서 부족한 서울의 군량미 수급을 위해 세미의 서두른 운반  
및 민간 선박을 징발하는 등의 대책을 건의하다
1492. 선조실록 권98 선조 31년 3월 17일(임인) 【23집 400면】 ..... 358  
명나라 형군문을 홍제원에서 전별하다
1493. 선조수정실록 권32 선조 31년 3월 【25집 664면】 ..... 359  
명나라 북쪽 변방에 경보가 있어 군문 형개가 요동으로 돌아가다
1494. 선조실록 권98 선조 31년 3월 17일(임인) 【23집 401면】 ..... 360  
경리도감에서 간첩을 잡는데 힘을 기울이라는 명나라 경리의  
의견을 전하다



1495. 선조실록 권98 선조 31년 3월 24일(기유) 【23집 404면】 ..... 360  
홍제원에서 귀국하는 진어사를 배웅하고 한강 방어에 대한 의견을  
듣다
1496. 선조실록 권98 선조 31년 3월 25일(경술) 【23집 404면】 ..... 361  
이필형이 의무를 게을리 하는 서울 거주 종친의 관직을 파하라는  
등의 현안을 건의하다
1497. 선조실록 권98 선조 31년 3월 26일(신해) 【23집 405면】 ..... 363  
서울에 머무르는 지휘 풍중영이 계첩을 보내 건의할 기회를 청하다
1498. 선조실록 권99 선조 31년 4월 6일(경신) 【23집 409면】 ..... 366  
동작동 모래사장에 나가 명군의 진법 연습을 관람하다
1499. 선조수정실록 권32 선조 31년 4월 【25집 664면】 ..... 368  
동작 모래밭에서 우리 군사들의 칼 쓰는 것을 보고 진유격이  
비웃다
1500. 선조실록 권99 선조 31년 4월 8일(임술) 【23집 410면】 ..... 369  
명나라 경리의 요청으로 용산창 미곡을 충주로 운반하다
1501. 선조실록 권99 선조 31년 4월 8일(임술) 【23집 410면】 ..... 369  
정업이 용산창에 있는 군량의 운반 상황을 아뢰다
1502. 선조실록 권99 선조 31년 4월 17일(신미) 【23집 416면】 ..... 369  
접대도감에서 명나라 경리가 서울에 배치한 병기를 보여주면서  
조선의 노력이 부족한 것을 힐책하였음을 보고하다
1503. 선조실록 권99 선조 31년 4월 25일(기묘) 【23집 422면】 ..... 372  
정원에서 명나라 진유격이 자신의 거처에 관왕묘를 수축하니 물력  
조달에 협력해야 함을 아뢰다
1504. 선조실록 권99 선조 31년 4월 27일(신사) 【23집 423면】 ..... 373  
비변사에서 각지의 무사를 거주지 단위로 조발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자고 건의하였으나 재검토하게 하다
1505. 선조수정실록 권32 선조 31년 4월 【25집 664면】 ..... 374  
영중추부사 심수경이 치사하다

1506. 선조실록 권100 선조 31년 5월 3일(정해) 【23집 432면】 ..... 374  
선박을 탈루시켜 군량 운반에 징발되는 것을 피하려고 한 종친 및  
관원을 처벌하기로 하다
1507. 선조실록 권100 선조 31년 5월 8일(임진) 【23집 435면】 ..... 375  
비변사에서 서울로 시급하게 군량을 운송하는 상황과 대책에 대해  
보고하다
1508. 선조실록 권100 선조 31년 5월 9일(계사) 【23집 436면】 ..... 378  
정원에서 경리가 성균관에 방문한 행적을 보고하다
1509. 선조실록 권100 선조 31년 5월 10일(갑오) 【23집 436면】 ..... 379  
남하하는 명나라 군사의 군량 조달을 위해 마가로 지급된 은으로  
곡식을 구매하기로 하다
1510. 선조실록 권100 선조 31년 5월 11일(을미) 【23집 437면】 ..... 379  
서울 근처의 유랑민에게 주인 없는 묵은 밭을 일구어 생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다
1511. 선조실록 권100 선조 31년 5월 14일(무술) 【23집 438면】 ..... 380  
임금이 관왕묘에 친제하다
1512. 선조실록 권100 선조 31년 5월 19일(계묘) 【23집 440면】 ..... 381  
모화관에서 명나라 관원 주사 서중소를 영접하다
1513. 선조실록 권100 선조 31년 5월 20일(갑진) 【23집 440면】 ..... 381  
경리가 군량 운송을 독촉하는 폐문을 만들다
1514. 선조실록 권100 선조 31년 5월 27일(신해) 【23집 442면】 ..... 382  
한강에 나가 마제독을 전송하면서 접반사를 통해 제독의 능력,  
도산 전투 등의 상황에 대해 듣다
1515. 선조실록 권100 선조 31년 5월 28일(임자) 【23집 442면】 ..... 384  
경리와 제독이 한강에서 열병하고 유람하다
1516. 선조실록 권101 선조 31년 6월 3일(병진) 【23집 444면】 ..... 385  
강화 사절로 요시라가 서울에 들어오자 임금이 명나라 경리에게  
계첩을 보내 경계하다

1517. 선조실록 권101 선조 31년 6월 17일(경오) 【23집 448면】 ..... 386  
한강에서 명나라 장수를 위로하는 연회를 베풀기로 하다
1518. 선조실록 권101 선조 31년 6월 18일(신미) 【23집 448면】 ..... 387  
유제독을 영접하고 명 병력의 식량 수급 문제와 왜적의 현황에  
대해 의논하다
1519. 선조수정실록 권32 선조 31년 6월 【25집 665면】 ..... 389  
제독 유정이 서울로 들어오니 모화관에 나가 맞이하다
1520. 선조수정실록 권32 선조 31년 6월 【25집 665면】 ..... 389  
수군 제독 진린이 수군 500여 척을 거느리고 전라도로 내려가다
1521. 선조실록 권101 선조 31년 6월 23일(병자) 【23집 452면】 ..... 389  
대신들과 함께 양경리가 참소당한 사정과 명군의 주둔에 따른  
서울의 상황에 대해 논의하다
1522. 선조실록 권101 선조 31년 6월 24일(정축) 【23집 453면】 ..... 396  
윤두수가 서울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강화의 부세 감면, 양호  
지역 백성들에 대한 지원책을 아뢰다
1523. 선조실록 권101 선조 31년 6월 27일(경진) 【23집 455면】 ..... 398  
어사 진효에게 답장하면서 군량 운송 문제를 언급한 회첩을 보내다
1524. 선조실록 권101 선조 31년 6월 29일(임오) 【23집 457면】 ..... 401  
주사종사관 권형과 전판관 임대춘이 명나라의 양곡을 신고 경강에  
도착하다
1525. 선조실록 권101 선조 31년 6월 29일(임오) 【23집 457면】 ..... 401  
호조의 건의로 명군에게 양식을 기증한 상인 김수령 등을  
논상하기로 하다
1526. 선조실록 권102 선조 31년 7월 1일(갑신) 【23집 458면】 ..... 401  
진주사 최천건, 서장관 경섭 등을 보내 양호를 변호하는 주본을  
올리다
1527. 선조수정실록 권32 선조 31년 7월 【25집 665면】 ..... 408  
최천건을 진주사로 삼아 경리 양호를 변호하는 주문을 보내다

1528. 선조실록 권102 선조 31년 7월 4일(정해) 【23집 461면】 ..... 411  
서울 거주민을 동원하여 체임되는 명 관원의 유임을 청하는 행세를 하게 하다
1529. 선조실록 권102 선조 31년 7월 5일(무자) 【23집 461면】 ..... 412  
비변사가 백관들과 서울 시민들이 경리 아문에 가서 행차를 막았던 상황을 아뢰다
1530. 선조실록 권102 선조 31년 7월 10일(계사) 【23집 464면】 ..... 413  
임금이 모화관에 거동하여 서주사를 종일 기다린 후 맞이하여 위로하다
1531. 선조실록 권102 선조 31년 7월 11일(갑오) 【23집 466면】 ..... 413  
홍제원에 나가 귀국하는 양경리를 위로하다
1532. 선조수정실록 권32 선조 31년 7월 【25집 666면】 ..... 415  
파직된 경리 양호를 홍제원에서 전송하다
1533. 선조실록 권102 선조 31년 7월 12일(을미) 【23집 467면】 ..... 415  
동작강에 나가 유제독을 전송하다
1534. 선조수정실록 권32 선조 31년 7월 【25집 666면】 ..... 415  
제독 유정이 군사를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가다
1535. 선조실록 권102 선조 31년 7월 13일(병신) 【23집 468면】 ..... 415  
조경을 한성부우윤에 임명하다
1536. 선조실록 권102 선조 31년 7월 15일(무술) 【23집 470면】 ..... 416  
남대문 밖에서 명나라 병력이 변장한 왜인을 체포한 일을 아뢰다
1537. 선조실록 권102 선조 31년 7월 19일(임인) 【23집 471면】 ..... 416  
서울지역의 군량 운송, 도성 수비 방안 등에 대해 대신과 논의하다
1538. 선조실록 권102 선조 31년 7월 20일(계묘) 【23집 471면】 ..... 419  
정언 박승업이 뇌물 청탁 혐의를 받자 사직을 청하였으나 기각하다
1539. 선조실록 권102 선조 31년 7월 21일(갑진) 【23집 472면】 ..... 420  
장령 홍경신이 박승업에 대한 자신의 지적이 정당함을 역설하고 사직을 청하다

1540. 선조실록 권102 선조 31년 7월 23일(병오) 【23집 474면】 ..... 421  
모화관에서 오부총을 만나서 성 공격용 기구의 준비를 요청받다
1541. 선조실록 권102 선조 31년 7월 27일(경술) 【23집 474면】 ..... 422  
사헌부에서 한성판윤 조경을 개차하도록 청하였으나 기각하다
1542. 선조실록 권102 선조 31년 7월 29일(임자) 【23집 475면】 ..... 422  
사간원에서 한성판윤의 개차 등을 건의했으나 기각하다
1543. 선조실록 권103 선조 31년 8월 2일(을묘) 【23집 476면】 ..... 423  
모화관에서 동제독을 만나니 양경리를 구명해 달라는 청을 받다
1544. 선조실록 권103 선조 31년 8월 3일(병진) 【23집 476면】 ..... 424  
홍제원에서 형군문을 만나서 양경리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다
1545. 선조수정실록 권32 선조 31년 8월 【25집 666면】 ..... 425  
마귀와 유정이 군사를 이끌고 서울로 돌아오다
1546. 선조실록 권103 선조 31년 8월 6일(기미) 【23집 479면】 ..... 425  
마제독의 관소에 행행하였으나 전날의 영접 소홀을 이유로 만남을 회피하다
1547. 선조실록 권103 선조 31년 8월 8일(신유) 【23집 480면】 ..... 426  
승지 최관이 명나라 마제독을 영접하지 않은 문제로 죄를 청하다
1548. 선조실록 권103 선조 31년 8월 8일(신유) 【23집 481면】 ..... 427  
명나라 제독을 영접치 못한 건으로 담당 승지를 추고하도록 하다
1549. 선조실록 권103 선조 31년 8월 10일(계해) 【23집 482면】 ..... 428  
질 나쁜 명나라 장수 팽신고를 접견하고 갖가지 청탁을 받다
1550. 선조실록 권103 선조 31년 8월 13일(병인) 【23집 483면】 ..... 430  
동작강에 나가 유제독을 위로하며 용담 전투에 대해 이야기하다
1551. 선조실록 권103 선조 31년 8월 18일(신미) 【23집 486면】 ..... 430  
남문 밖에서 제독 마귀 등을 전송하고 식량 조달에 대한 요청을 받다
1552. 선조실록 권103 선조 31년 8월 19일(임신) 【23집 486면】 ..... 431  
호조에서 6월 이후 서울로 들어오는 군량선에 대해 보고하다

1553. 선조실록 권103 선조 31년 8월 22일(을해) 【23집 486면】 ..... 432  
 동작강에서 왕참정을 전별하면서 적장 평행수의 철수에 대해 이야기하다
1554. 선조실록 권104 선조 31년 9월 4일(병술) 【23집 490면】 ..... 432  
 모화관에 가서 명나라 주사 정응태를 위로하다
1555. 선조실록 권104 선조 31년 9월 6일(무자) 【23집 491면】 ..... 433  
 계림도정 이언진이 상경하면서 징발한 말을 돌려주지 않는 등 민폐를 끼쳐 파직하다
1556. 선조실록 권104 선조 31년 9월 8일(경인) 【23집 492면】 ..... 433  
 비변사에서 명나라 진제독의 한심한 소행을 우려하여 유제독을 통한 통제 방안을 검토하다
1557. 선조실록 권104 선조 31년 9월 11일(계사) 【23집 492면】 ..... 434  
 동작강에 가서 명나라 안찰사 왕사기를 위로하다
1558. 선조실록 권104 선조 31년 9월 12일(갑오) 【23집 493면】 ..... 434  
 홍제원에 가서 명나라 급사 서관란을 맞이하고 군문 형개의 무죄를 변론하다
1559. 선조실록 권104 선조 31년 9월 17일(기해) 【23집 495면】 ..... 438  
 해평부원군 윤근수가 도통판을 통해 들은 급사 서관란의 판단 내용을 보고하다
1560. 선조실록 권104 선조 31년 9월 17일(기해) 【23집 495면】 ..... 439  
 비변사에서 서울에 체류하는 요시라를 요동으로 옮기는 방안을 건의하다
1561. 선조실록 권104 선조 31년 9월 18일(경자) 【23집 495면】 ..... 440  
 인시에 남대문 밖 삼거리에 가서 양포정을 전송하다
1562. 선조실록 권104 선조 31년 9월 21일(계묘) 【23집 496면】 ..... 440  
 임금의 업무를 중단하게 만든 조선을 비난하는 명나라 찬획주사 정응태의 주본
1563. 선조실록 권104 선조 31년 9월 21일(계묘) 【23집 497면】 ..... 443  
 정응태의 주본 때문에 업무 처결을 세자에게 대행하게 하다

1564. 선조실록 권104 선조 31년 9월 24일(병오) 【23집 501면】 ..... 445  
정원에서 임금이 다시 업무를 처리하기를 청하다
1565. 선조실록 권104 선조 31년 9월 24일(병오) 【23집 502면】 ..... 446  
지평 이이첨이 서울에 있는 대신을 임명하여 하루바삐 명에 사신을 보내도록 아뢰다
1566. 선조실록 권104 선조 31년 9월 24일(병오) 【23집 502면】 ..... 446  
서울의 대신을 변무사로 속히 파견하는 등의 문제로 사헌부 내의 이견이 노출되다
1567. 선조실록 권104 선조 31년 9월 24일(병오) 【23집 503면】 ..... 447  
홍문관에서 서울의 대신을 명에 차송하는 사안에 대한 사헌부 내의 갈등을 중재하다
1568. 선조실록 권104 선조 31년 9월 24일(병오) 【23집 503면】 ..... 448  
이이첨이 서울 대신의 차송 문제로 야기된 갈등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다
1569. 선조실록 권104 선조 31년 9월 25일(정미) 【23집 505면】 ..... 449  
서울 대신의 차송 문제로 갈등을 빚은 이이첨·이헌국을 체차하다
1570. 선조실록 권104 선조 31년 9월 27일(기유) 【23집 508면】 ..... 450  
참론을 받아 조사 중이므로 명나라 어사를 맞이하지 못한다고 하다
1571. 선조실록 권104 선조 31년 9월 27일(기유) 【23집 508면】 ..... 450  
임금이 근신하는 상태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명나라 어사를 맞이하는 방식을 논의하다
1572. 선조실록 권104 선조 31년 9월 28일(경술) 【23집 508면】 ..... 451  
동부승지가 명 사신을 만나서 국왕이 사신을 맞이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결과를 보고하다
1573. 선조실록 권104 선조 31년 9월 28일(경술) 【23집 510면】 ..... 451  
급사 서관란에게 서울의 군량 및 방어 계획, 기타 전선의 현황 등의 내용을 담아 회자하다

1574. 선조실록 권105 선조 31년 10월 1일(계축) 【23집 513면】 ..... 458  
부교리 이이첨이 서울 대신을 명에 차송하는 사안 등에 대해  
사헌부 내에서 의견이 불일치한 경위를 밝히고 사직하다
1575. 선조실록 권105 선조 31년 10월 5일(정사) 【23집 517면】 ..... 460  
사간 이상신이 서울에 있는 대신 중 유성룡을 명에 차송하는 것이  
옳다는 자신의 생각을 고수하다
1576. 선조실록 권105 선조 31년 10월 6일(무오) 【23집 518면】 ..... 461  
성균관 생원 등이 변무사로 차송 예정인 유성룡을 탄핵하는  
상소문을 올리다
1577. 선조실록 권105 선조 31년 10월 8일(경신) 【23집 519면】 ..... 463  
남원 패전으로 처형된 명나라 장수 양원의 머리가 남대문에 도착하다
1578. 선조실록 권105 선조 31년 10월 10일(임술) 【23집 519면】 ..... 463  
이항복이 서둘러 명에 진주사로 파견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상차를  
올리다
1579. 선조실록 권105 선조 31년 10월 12일(갑자) 【23집 519면】 ..... 464  
이항복이 사직의 형식으로 명에 국왕의 입장을 옹호하러 차송되는  
사신 단을 구성하는 논의를 하다
1580. 선조실록 권105 선조 31년 10월 20일(임신) 【23집 522면】 ..... 466  
병조의 건의로 권율의 작전을 위해 서울에 주둔하는 병력의 일부를  
차출하는 등의 조치를 결정하다
1581. 선조실록 권105 선조 31년 10월 23일(을해) 【23집 524면】 ..... 467  
남중 동한유가 곡식과 무역하기 위해 서울로 보낸 포가 도착하다
1582. 선조실록 권105 선조 31년 10월 25일(정축) 【23집 525면】 ..... 468  
홍여순을 한성부판윤으로 임명하다
1583. 선조수정실록 권32 선조 31년 10월 【25집 671면】 ..... 468  
명나라 경리가 서울에 들어오다
1584. 선조실록 권106 선조 31년 11월 1일(임오) 【23집 528면】 ..... 468  
남대문 밖에서 명나라 급사를 전송하다



1585. 선조실록 권106 선조 31년 11월 1일(임오) 【23집 528면】 ..... 469  
 노유격의 아들이 서울에 체류하는 비용을 지급하라고 요청하다
1586. 선조실록 권106 선조 31년 11월 4일(을유) 【23집 529면】 ..... 469  
 남대문 밖에서 명나라 어사를 전송하다
1587. 선조실록 권106 선조 31년 11월 6일(정해) 【23집 530면】 ..... 469  
 비변사에서 군량 확보를 위하여 납속하는 제도의 엄격한 시행을  
 건의하다
1588. 선조실록 권106 선조 31년 11월 16일(정유) 【23집 532면】 ..... 470  
 사간원이 서울 및 지방에서 여러 행태를 거론하며 유성룡을  
 탄핵하다
1589. 선조실록 권106 선조 31년 11월 16일(정유) 【23집 532면】 ..... 473  
 사헌부에서 체직된 유성룡의 삭탈관작을 요청하다
1590. 선조실록 권106 선조 31년 11월 19일(경자) 【23집 533면】 ..... 474  
 유성룡을 삭탈관작하다
1591. 선조실록 권106 선조 31년 11월 24일(을사) 【23집 534면】 ..... 475  
 영돈녕부사 이산해 등이 왜적이 퇴각한 기쁨을 아뢰고, 사론은  
 왜적을 패퇴시키지 못한 아쉬움을 담다
1592. 선조실록 권106 선조 31년 11월 25일(병오) 【23집 535면】 ..... 476  
 모화관에 가서 명나라 경리 만세덕을 영접하다
1593. 선조실록 권106 선조 31년 11월 30일(신해) 【23집 537면】 ..... 476  
 예조에서 이순신의 제사 문제를 문의하였으나 무성의하게 답하다
1594. 선조실록 권106 선조 31년 11월 30일(신해) 【23집 537면】 ..... 477  
 경리도감에서 명군을 이늘고 서울에 진주한 만도야에 대해 평하다
1595. 선조실록 권107 선조 31년 12월 8일(기미) 【23집 542면】 ..... 478  
 군문도감에서 일본과의 교섭 사항을 언급한 사세용의 말을 보고하다
1596. 선조실록 권107 선조 31년 12월 13일(갑자) 【23집 544면】 ..... 479  
 정원에 명의 연호를 사용하였다는 증거를 문장에 삽입할 것을  
 전교하다

1597. 선조실록 권107 선조 31년 12월 16일(정묘) 【23집 545면】 ..... 479  
예조에서 증전이 서울로 귀환할 것을 주청하다
1598. 선조실록 권107 선조 31년 12월 18일(기사) 【23집 545면】 ..... 480  
비망기로 서울에 수천의 포수를 상주하게 하는 등 명군 철수 뒤의  
병력 수급에 관해 지시하다
1599. 선조실록 권107 선조 31년 12월 18일(기사) 【23집 546면】 ..... 482  
비망기로 서울에서의 과거 전시 시행을 지시하다
1600. 선조실록 권107 선조 31년 12월 24일(을해) 【23집 549면】 ..... 482  
비변사에서 서울의 금군을 보강하고 훈련도감 포수 등을 강화할 것  
등 현안을 보고하다
1601. 선조실록 권107 선조 31년 12월 27일(무인) 【23집 550면】 ..... 485  
예조에서 서울에 시신이 도착한 전사한 명나라 장수를 위해  
친제하는 건에 반대하다
1602. 선조실록 권107 선조 31년 12월 28일(기묘) 【23집 550면】 ..... 485  
이산해 등이 명나라 군문과 경리에게 정문을 보내 광해군을 후사로  
인정받는 데 협조를 부탁하다